

대중가요와 클래식 샘플링에 관한 연구 - ‘Shut Down’을 중심으로 -

김명주,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gkvm19980804@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Classic Sampling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Shut Down’-

Myeong-Joo Ki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대중음악에서의 샘플링은 과거 음악을 재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 작품을 창조하거나, 다른 작품에 소리나 음악적 요소를 삽입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는 음악적 혁신과 새로운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대중음악에서의 클래식 샘플링 현상을 조사하고,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BLACKPINK의 ‘Shut Down’을 중심으로 클래식 샘플링과 대중가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클래식 샘플링은 과거 명작을 현대음악에 재해석하여 새로운 청취 경험을 제공하며, 음악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문화적 유산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클래식의 감성과 작곡 기술을 K-POP에 융합시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기존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취층을 유치할 수 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융합을 통해 색다르지만 익숙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K-POP의 대중성이라는 강점에 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서론

K-POP은 여러 장르의 융합을 통해 한 곡에서 다양한 청취 경험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클래식 샘플링을 사용한 음원이 음악 차트에 오르며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샘플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음악 분야에서도 샘플링이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샘플링은 넓은 의미에서 녹음, 커버, 음원 재사용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1]. 저작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7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 클래식의 경우 1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클래식 샘플링은 POP음악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음악에도 사용되고 있다. K-POP 1세대 아이돌 H.O.T의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을 샘플링한 ‘아웃사이드 캐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제 4악장 환희의 송가를 샘플링한 ‘빛’ 등이 있으며 신화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T.O.P’가 있다.

본 논문은 음원 재사용을 통한 클래식 샘플링의 역할과, 클래식의 고전적인 요소가 현대음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살펴보고, 음악적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는 종소리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이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니콜로 파가니니(Niccolo Paganini)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3악장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인 만큼 솔리스트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연주하며 총 30분 정도 길이인 대곡이다. 원곡은 바이올린의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로 인해 피아노 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란츠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의 종소리의 효과는 파가니니의 원곡보다 더 선명하며 특히 고음 부에서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주제가 인상적이다[2].

2.1 Shut Down-BLACKPINK

블랙핑크(BLACKPINK)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이다. 2016년 8월 싱글 [SQUARE ONE]으로 데뷔했으며 타이틀곡 ‘휘파람’이 음원 차트 2주 연속 1위에 랭크되었고, 데뷔 14일 만에 공중파 1위를 차지해 당시 기준 역대 걸그룹 공중파 1위 최단 기록

을 세웠다[3]. 2019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서브 헤드라이너로 초청되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이 후 2023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초청되었다. 두아리파(Dua Lipa), 레이디가가(Lady Gaga), 카디비(Cardi B), 셀레나고메즈(Selena Gomez) 등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하기도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견고해졌다.

‘Shut Down’이 수록되어있는 정규 2집 [BORN PINK]는 태생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지닌 블랙핑크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앨범 명으로 강렬한 사운드를 담은 독보적인 트랙 8곡이 수록 됐다[4]. 한터차트 집계 기준 발매 당일 101만장이 판매되며 컴백과 동시에 K-POP 걸그룹 하루 판매고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5]. K-POP 가수 최초로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Brigitte Macron)이 주최하는 병원재단 자선 행사 콘서트 ‘Le Gala des Pieces Jaunes’에 초대되어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Daniel Lozakovich)와 ‘Shut Down’무대를 함께 하기도 했다.

2.1.1 곡 분석

‘Shut Down’은 공간의 폐쇄를 뜻하며, 8분의 6 박자의 트렌디한 힙합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위에 위트 있는 노랫말이 담겨있어 블랙핑크만의 색을 진하게 보여주는 곡이다. 이 곡은 샘플링 자체가 중심적인 곡이다. 세련된 비트와 강렬한 바이올린 소리를 통해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Hook은 아니지만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Loop처럼 사용함으로써 POP시장을 겨냥한 곡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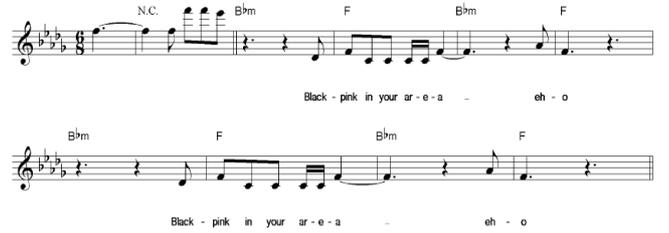
La Campanella

Paganini Kreisler



[그림 1]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니콜로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9마디)

위 [그림 1]은 원곡의 주제선율이며 제목인 종소리를 연상케하는 스타카토로 연주된 부분이다. 첫 번째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의 단선율을 가져와 특정 구간에만 사용한 것이 아닌 곡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림 2] Shut Down-BLACKPINK, Intro

도입부부터 [그림 1]의 첫 번째 마디부터 3번째마디 중간까지 샘플링하여 날카로우며 선명한 바이올린 라인과 드릴 같은 트랩비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강한 색을 보인다. 9마디로 이루어진 Intro에 시그니처 사운드 ‘Black pink in your area’를 삽입하여 당찬 자신감을 표현한다. 화려한 바이올린 라인에 진한 808 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화려하지만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그림 3] Shut Down-BLACKPINK, 11-26마디

보컬에 집중할 수 있게 샘플링을 한 옥타브 낮추었으나 도입부부터 [그림 3]까지 샘플링과 트랩비트, 808베이스가 짝 이어진다. 가사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소문들을 잠재우며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Shut Down-BLACKPINK, 27-30마디

트랩 비트 하나로 곡을 이끌며 메인멜로디 라인을 한 옥타브 맞춰 더블링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그에 반해 가사는 걱정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메시지를 주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Shut Down-BLACKPINK, 31-34마디

